



〈성가정〉, 최봉자 수녀 작

**[제1독서]**..... 집회 3,2-6.12-14〈또는 1사무1,20-22.24-28〉

**[제2독서]**..... 콜로 3,12-21〈또는 1요한 3,1-2.21-24〉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루카 2,41-52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13] 성요셉과 성마리아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8] 오묘하온 성체  
[182] 신묘하온 이 영적
- 파견성가: [114] 나자렛 성가정

## 부모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 <sup>41</sup>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sup>42</sup>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sup>43</sup>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sup>44</sup>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sup>45</sup>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sup>46</sup>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sup>47</sup>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sup>48</sup>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sup>49</sup>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sup>50</sup>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sup>51</sup>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sup>52</sup>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교회는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431년)이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이 축일은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지내고 있다. 또한 바오로 6세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평화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청한다.

## 묵상

오늘날 가정은 많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도덕적으로 파괴되면 사회와 교회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 인류의 첫 가정을 만드셨고, 모든 인간이 가정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당신 사랑의 계획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외아들도 예외 없이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로 이루어진 성가정은 매우 신앙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여자는 순례 의무가 없지만, 마리아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는 요셉과 동행하였고, 열세 살이 된 남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성인으로 선언되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축제를 지내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그에 따른 불편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니다.

예루살렘에 오가는 사람들은 남자들 일행과 여자들 일행으로 큰 무리를 지어 다녔는데 어린이는 어느 쪽으로든 다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반면에 요셉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날 일정을 마치고 식사와 저녁 휴식을 위하여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르고 밤을 새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들은 사흘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큰 걱정과 불안이 담긴 마리아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 삶의 중심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잊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월 1일(화) 오전 8시, 10시

성탄 메시지와 교황 강복(Urbi et Orbi)

## “저의 성탄 소망은 형제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월 25일 성탄 메시지와 교황 강복(Urbi et Orbi)을 통해 “행복한 성탄절 소망”으로 “형제애”를 기원했다.

### 선한 아버지이신 하느님

교황은 성탄의 의미가 “하느님은 선한 아버지이시며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한 아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형제적 사랑 없이는, 공정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삭막하고 공허”하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행복한 성탄을 맞아 제가 소망하는 것은 형제애를 위한 소망입니다.”



### 형제애

교황은 국가, 문화, 이데올로기, 종교를 떠나 모든 개인들 가운데 형제애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하느님의 얼굴”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성과 차이점들은 모자이크 작가가 다양한 색상의 타일을 이용해 작품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요의 원천”이 된다고 교황은 설명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계속시키시며, “형제애의 힘과 토대”가 되어 주신다.

### 구체적 속고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얼굴을 드러내시기 위해 선택하신 땅”을 분열시킨 70년 간의 갈등을 종결할 평화의 길 모색과 대화의 재개를 기원했다. 아울러 시리아인들이 “긴 전쟁 끝에 형제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황을 떠난 이들이 국제사회의 협조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기원했다. 예멘과 관련해서는 휴전이 유지되어 “전쟁과 기근에 지친”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길 기원했다. 아프리카와 관련,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무력충돌을 침묵”시키시어 “대륙 전체에 형제애의 새로운 여명이 밝아올 수 있길” 기원했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화해의 분위기가 지속돼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형제애적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길 기원했다.

###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끝으로 교황은 구유의 아기 예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 약한 이들, 취약한 이들, 버려진 이들을 보살펴 주시길” 기도했다. 교황은 “구세주의 탄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고 있음”을 알고, 세상 모든 이들이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하는 한편,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자매인 것”을 깨달아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희망했다.

<https://www.vaticannews.va>

제52차 세계 평화의 날(2019년 1월 1일) 담화문(부분)

##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루카 10,5)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안하신 이 말씀을 받아 제52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인사말을 대신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이란 모든 가족, 모든 공동체, 모든 국가, 모든 대륙을 아우른다고 지적했다.

### 평화의 봉사

교황은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통해 “평화의 봉사에 있어서 좋은 정치”의 역할을 목상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인간적 미덕을 기초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악덕들에 대한 경고

아울러 교황은 정치에 피해를 입히는 악덕들, 곧 부패,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 망명자들에 대한 경멸 등에 대해 경고했다. “정치 권력의 행사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할 때, 미래는 위태로워지며 젊은이들은 자신감을 상실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어 교황은 “모든 사람은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각자의 돌을 기부할 수 있다”면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재능과 열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정치인들을 격려했다.

### 평화의 기초

교황은 위협과 공포의 정치를 거부하고, “무기들이 무절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평화란 “출신배경과 상관없이 각 개인을 존중하는 것, 공동선과 법을 존중하는 것, 환경을 존중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지난 세대들로부터 계승된 도덕적 전통”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vaticannews.va>

# 2018 CCD CHRISTMAS ACTIVITIES

On December 16<sup>th</sup>, the CCD Christmas Special Activities were held in the Hasang building. Those participating were split into two groups based on grade, one group being K-4<sup>th</sup> grade and the other being 5<sup>th</sup>-8<sup>th</sup>. The two groups were given stickers to sort them further into the yellow, red, and blue teams. Students had fun as they went around to three different stations with their teammates.

## Picture Station



## Escape Room



## Making Snow Globe



## Cookie Decoration



## Making Christmas Card



## Paper & Straw Trees



## ANNOUNCEMENT



• Solemnity of Mary, the Holy Mother of God  
Holiday of Obligation



• First Communion Class Resumes



• Sunday School Classes Res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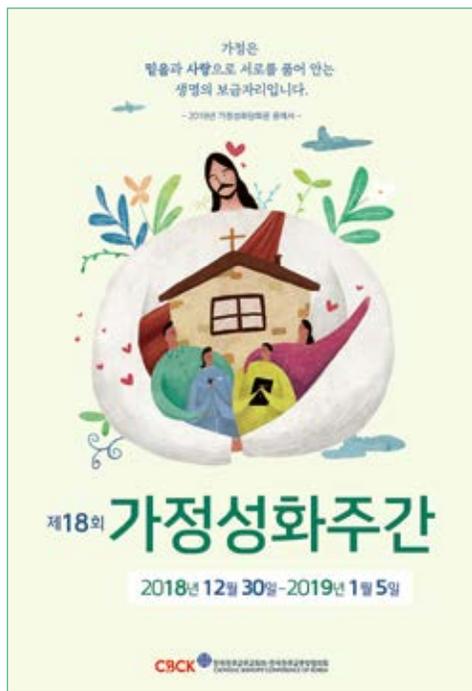
## 생명을 품는 가정

“성탄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다가올 역경에 용감히 맞서 생명을 선택한 마리아와 요셉을 마주합니다. 아직 이들은 장차 이 아기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기로 말미암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또 앞으로 겪게 될 고단한 미래는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품어 안았으며 그 선택은 세상의 구세주를 낳았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소유하며 자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자녀의 생명이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 안는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 성화 주간을 보내면서 온전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유대를 맺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나누었던 감사함과 미안함의 다정한 눈길을 건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가정 안에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서로의 생명을 품어 안는 가운데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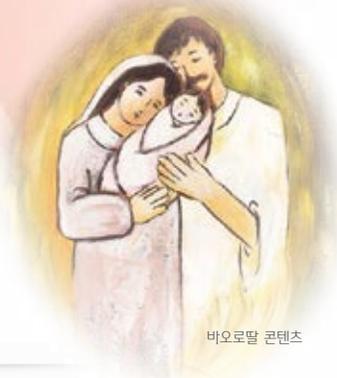
(2018년 제18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 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이성호 주교



##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박요달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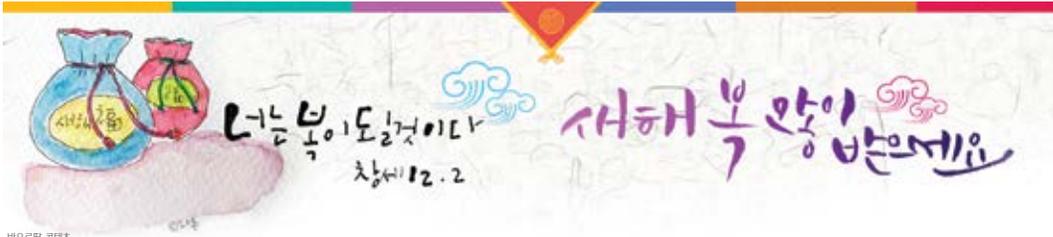
## 알링톤 교구 은퇴 사제 빌라 방문

사도회장단은 지난 12월 19일(수) 백인현 주임 신부와 알링톤 교구 은퇴 사제 빌라를 방문하여 은퇴 사제들과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은퇴 사제 빌라에는 현재 은퇴하신 폴 로바디 주교와 알링톤 교구 은퇴 사제 아홉 분이 거주하시며, 두 분의 수녀가 빌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빌라에 도착하니 은퇴 사제들과 수녀가 백인현 주임 신부와 사도 회장단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은퇴 사제들이 은퇴 후에도 바쁘게 활동하시는 관계로 사제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로바디 주교의 강복을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고유의 풍습과 한국 음식을 소개하였다. 특히 갈비, 잡채와 김치전이 많은 인기가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성 정 바오로 성당의 근황과 교회의 앞날에 대해 의견을 함께 나눴다.

떠나기 전 복주머니가 들어간 작은 선물을 사제들과 수녀들에게 전하였다. 은퇴 사제들이 우리 방문에 많은 감사를 전하였고, 일년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사도회장단 기사 제공>





교회님의 1월 기도 사항

**복음화 지향:**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젊은이 젊은이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19년 성경 필사 주간 계획표가 후보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3일(목) 오후 5:00-6:00  
1월 4일(금) 저녁 8:00-9:00  
1월 6일(일) 아침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강: 길 들여지는 삶 (2부) - 허석훈 루카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2월 23일(대림 제4주일) / 성탄 대축일

주일헌금	\$ 7,854.69
교무금	\$ 28,09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15,447.00
특별헌금	\$ 281.00
구역예물	\$ 14,015.00
성탄 밤 미사	\$ 3,497.00
성탄 낮 미사	\$ 9,298.00
합계	\$ 78,482.69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정영금(테레사), 김영식(요한),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석(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로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로로), 박승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정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철(루시아), 임현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박침(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인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인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1월 1일(화) 오전 8시, 10시

1 병자 영성체

- 일시: 1월 4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264-0050

2 회장단 회의

- 일시: 1월 4일(금) 오후 8:20(회의실)

3 성체강복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에 '성체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구역임원 교육

- 일시: 1월 6일(일) 오전 11:30(B-1,2)

5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1월 6일(일) 오후 1시(B-1)

6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1월 6일(일) 오후 1시(B-3,4)

7 본당 달력 배부

- 2019년 본당 달력을 친교실에서 배부하고 있으니 각 가정당 한 부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8 동전 모으기 저금통 봉헌(복지부 주관)

- 동전 저금통 봉헌에 사랑으로 동참해 주세요.
- 봉헌: 다음 주일인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에 봉헌해 주십시오.

9 동전 분류 작업

-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 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1월 6일(일), 13일(일), 10시 미사 후(A-1,2)
- 문의: 김소피아 (703)314-0905

10 2018년 교무금 납부 안내

- 세금 공지서 발급 관계로 2018년 교무금을 2019년 1월 1일(화)로 마감합니다. 2018년 교무금을 미납하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교무금 카드는 세금공지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되니 당분간 카드 없이 납부해 주십시오.

11 2019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 일정: 2019년 1월 18일(금)
- 참석 인원: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앞으로 3주간 더 받습니다.
- 문의: 사무실 (703)968-3010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구유를 만드신 전례부와 현관 앞 구유를 제작한 로고스, 대 친교를 준비해 주신 성모회와 아름다운 미사를 위해 애쓰신 제대회, 성가대, 복사단, 핸드벨 팀, 재무부, 문화부, K of C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Giving Tree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Giving Tree가 본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원주 가리따스 주최로 해마다 이어져 온 사랑의 Giving Tree에는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동 1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2월 30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예비자 교리(오전 11:40), 주일학교 휴강
31일(월)	성탄 팔일 축제 제7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월 1일(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대축일 미사(오전 8시, 10시), 성당
2일(수)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3일(목)	주님 공현 대축일 전 목요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4일(금)	성녀 엘리사벳 앤 시튼 기념일	병자 영성체,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성체강복), 회장단 회의(오후 8:20), 로고스
5일(토)	성 존 노이만 주교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40, 친교실), 첫 토요일미사(오후 6:15, 성당)
1월 6일(일)	주님 공현 대축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 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A-3)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정태 요셉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레드핀 소독</b>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운 (마키엘) 703-881-1155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828-3373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 (바오로) 703-907-9299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예비 펫 그루밍</b>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영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